# 태고종 분규 종식 '정상화' 기대

## 15일 판결문 송부… 편백운 스님 멸빈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 이후 지속된 분규가 완전히 종식됐다. 편백운 스님의 당선무효 결정에 이어 호법원의 멸빈 판결이 종법에 따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태고종이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고, 종단 미래를 위한 새 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 4월 28일 태고종 호법원의 심리종결 및 최종판결에 이어, 종법에 따라 5월 15일 판결문 송부 시점을 기준으로 멸빈됐다. 이로써 편백운 스님의 태고종도로서의 자격은 완전히 박탈됐으며, 불신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치달았던 태고종 분규도 막을 내렸다.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되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이제야 끝났다"는 시각이 많다.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 이후에도 이에 반발해 총무원 청사를 불법점거·폐쇄하는 등의 행위로 종단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도들의 혼란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편백운 스님은 신임 집행부에 의해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종단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신임 무효 소송' 등 사회법 절차를 주장하며 종도들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의 멸빈 징계는 종법의 절차대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법과 관계없이 종도로써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편백운 스님이 멸빈되면서 태고종 공찰 주지를 포함한 종단 소임 자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편백운 스님 외에도 법장, 지행, 혜암, 성오, 원응, 진목 스님 5명에 대한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랜시간 이어진 분규와 혼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지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그 과정은 다소 더뎠지만 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제야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거 편백운 스님의 방만한 종단 운영으로 인한 종단채무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4월 28일 태고종 호법원이 진행한 최종 심리. 前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됐다.

**종법상 판결문 송부기준**
**5월15일 징계 효력 발생**
**호명 스님 "새출발 토대"**
**"안타까운 사례 등 관련**
**경감 방안도 모색할 것"**

이런 가운데 호명 스님은 "진정한 종단 화합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랜 분규로 인한 상처를 보듬는 한편, 종단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알게 모르게 와해되고 분산된 종도들을 종단 발전이라는 하나의 원력으로 모아내는 것도 중대한 과제로 남았다.

종단 분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자에 대한 징계 경감 및 사면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명 스님은 "분규 이후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록 종법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해 징계를 받았지만 정상참작이 가능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는 총무원의 관할이 아니라 초심원, 호법원 등 사법기구의 소관이고 철저히 종법에 의거해 진행되기에 어떠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는 게 확고한 종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스님은 "종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 경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종단 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로 자의와 다르게 관여하게 된 징계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경감을 위한 방안은 6월 예정된 중앙종회 등에 안건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발목잡혀 진행되지 못했던 원로회의 구성과 종정 추대 등도 6월 중앙종회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편백운 스님이 종단 징계에 불복하면서 "내부 징계보다 재판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불신임 무효 소송' 의 경우 5월 15일 심리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간 편백운 스님이 진행했던 소송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측은 "편백운 스님의 멸빈 징계는 종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에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 조계종, 일선 사찰 분담금 감면 추진

**13일 종무회의서 조정키로**
**사찰 일괄 10% 감면 전망**
**중앙분담금회의 논의 이후**
**중앙종회 추경 발의 진행**
**소외계층 등 마스크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대중들이 4월 30일 열린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 법회'서 '약사여래불' 종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을 위해 조계종이 올해 책정된 분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5월 13일 종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사찰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 예산에 반영된 사찰 분담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액은 분담금 요율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찰에게 분담금 감면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종단 소속 모든 사찰들에게 분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계종의 분담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찰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조계종은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지난 2월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리고 법회, 강연 등 대중행사를 중단시켰다.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폐쇄를 단행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법회와 신도 교육 등이 중단되고 문화재관람료 수입 등도 감소하면 일선 사찰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과 어려움은 늘어나게 됐다.

이에 조계종 관계자는 "분담금 감면 조치는 5월 중 열릴 중앙분담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종무회의를 통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고 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면 조치는 그간 종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일선 사찰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뤄졌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윤사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선 사찰 3000여 곳과 소외계층에 마스크 50만 장을 배포한다. 마스크 배포는 5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법진 스님, 이사장 4연임 안된다"

**선학원 분원장 입장문**
**9월 임기 종료 앞두고**
**'4연임·수렴청정' 우려**
**이사회 정상화 촉구도**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임기가 9월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이 이사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는 5월 14일 '제20대 (재)선학원 이사장 선출에 대한 창건주·분원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이사장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진 스님이 4번째 연임을 위해 모의한다는 소문부터 대리집권 등 제20대 이사장에 대해 갖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사회는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의 이 같은 우려는 법진 스님이 지난 2019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대법원으로부터 6개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이사회는 2012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의 모 스님에 대해 '창건주 권한 박탈'을 결의했다"며 "왜 법진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도 장기집권의 유혹은 경계한다"며 "참회하고 근신해도 부족할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고 있는 선학원에서 '4연임' '수렴청정'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이에 20대 이사회는 여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전국 창건주·분원장이 모두 선학원의 주인이기에 20대 이사장 선출은 창건주·분원장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 템플스테이 우수사찰 39곳 선정

**문화사업단, 만족도 등 평가… "위로·희망 전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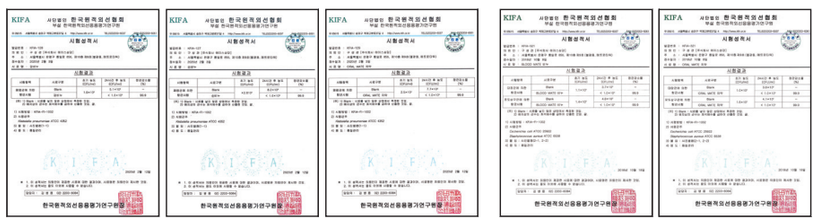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5월 13일 2019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을 선정·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2019년 기준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39곳이 템플스테이 우수 운영사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 8곳, 경상 8곳, 강원 3곳, 전라 5곳, 충청 7곳, 제주 1곳이다.

문화사업단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별 운영 실적, 운영 인력, 참가자 만족도, 나눔 템플스테이 활동, 홍보 활동 등 15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연도별 우수 운영사찰을 선정하고 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심한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 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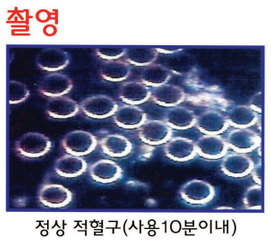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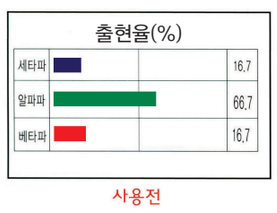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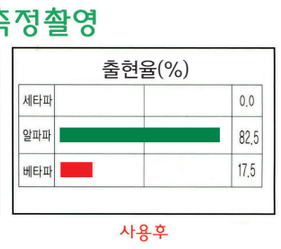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